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1:00 ~ 13: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지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을 사용할 것.(청색/적색 펜 및 연필은 사용 불가)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지 수정은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제 시 문 □

[가] 법을 제정하는 자들은 힘 없는 대다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며,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 힘 있는 자들이나 더 많이 가질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겁을 줍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부끄럽고 부정의(不正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열등한 자들이기에 자신들이 동등한 몫을 가지면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철학을 이용하여 이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자연 자체를 따르다면,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보다, 그리고 더 유능한 자가 더 무능한 자보다 더 많이 갖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동물 사이에서뿐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사이에서도 정의는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다스리며 더 많은 몫을 갖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크세룩세스가 그리스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나 그의 아버지가 스키타아인들에게 쳐들어갔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정의에 의지했던가요? 이런 사례는 누구라도 수없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제우스께 맹세컨대, 이들은 정의의 본성에 따라, 즉 자연의 법에 따라 이런 일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하고 강한 자들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뒤, 그들에게 서로 동등한 몫을 가지는 것이 훌륭하고 정의롭다고 주문과 마법을 걸어 노예로 만들지요. 하지만 충분히 강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부서뜨리며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법에 반하는 우리의 기록, 마술, 주문, 법을 모두 짓밟고 일어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의 정의가 빛을 발합니다. 핀다로스도 자신이 지은 송가(頌歌)에서 저의 이런 주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사지도 않았고 게뤼온이 주지도 않았음에도 게뤼온의 소들을 몰고 가버렸다고 핀다로스는 말합니다. 소들이건 다른 무엇이건 더 못하고 더 약한 자의 소유물은 더 낫고 더 강한 자에게 속한다는 것, 이것이 자연의 정의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여, 당장 철학을 포기하고 더 큰 일에 발을 들여놓으시면 이 점을 아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든 적절한 나이에 적당한 정도만 손을 댄다면 철학은 분명히 고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철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좋은 자질을 타고났어도 적절한 나이를 넘어 철학을 할 경우에는, 훌륭하고 강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모든 일에 미숙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나 사적 거래에서 사용해야 하는 말에도, 인간적인 즐거움과 욕구에도, 한마디로 말해 인간적인 관행 모두에 완전히 모자란 자가 됩니다. 사적인 활동이나 정치 활동과 같은 실천적인 문제에서는 언제나 웃음거리가 되지요.

[나] 임어당(林語堂) 선생이 ‘페어플레이(fair play)’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가장 부족하기에 적극적으로 고취해야 하며,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라고 말했다. 나는 영어를 모르기에 이 단어의 뜻이 대관절 무엇인지는 모른다. 다만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는 것’이 이 정신이라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물에 빠진 개는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가 아무리

짓어대더라도 도의(道義)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덕이 없다. 더구나 개는 해움을 칠 줄 안다. 언젠가는 분명 독에 기어 올라올 것이며, 주의하지 않으면 몸을 털어 사람 얼굴이나 몸에 물을 튀기고는 꼬리를 사리며 달아날 것이다. 만일 물에 빠진 뒤의 처지를 너무 가련하다고 여긴다면, 사람을 해치는 동물 중 가련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으면 도리어 개에게 물린다. 이는 순진한 사람이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다.

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페어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나는 즉각 대답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어진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방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일률적으로 페어플레이를 적용하여 그는 당신에게 페어(fair)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만 그에게 페어했다가는 결국 당신 자신만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먼저 상대를 똑똑히 보고 상대가 페어하게 나온 다음 그에게 페어해도 늦지 않다.

머릿속에는 편파적인 도리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는 공정한 도리를 운운하는 신사들의 명언은 차라리 제쳐두고라도, 순진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공정한 도리조차도 현재 중국에서는 선량한 사람을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학대할 적에는 누군가 아무리 공정한 도리를 외쳐도 악인들은 절대 듣지 않는다. 그저 외침으로 그칠 뿐 선량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기 때문이다. 어쩌다 선량한 사람들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 악인들이 마땅히 물에 빠져야 할 터인데도, 순진한 사람들은 공정한 도리 운운하며 “보복하지 말라”, “너그럽게 용서하라”, “악에 악으로 응징하지 말라”고 외쳐댄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 외침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면서 악인을 구제해준다.

그러나 악인들은 구제되고 나서, 자신들이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할 뿐 절대 회개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교활한 토끼처럼 굴을 셋이나 파놓은 데다가 아부하는 재간까지 있어서 얼마 안 가서 빛나는 명성을 되찾게 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공정한 도리를 운운하는 자들은 또다시 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번이라고 그들이 들을 리 만무하다.

[다] 기업은 구조적으로 사회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장 간단한 예가 전기와 수도, 전화와 통신망 등의 사회적 인프라이다. 교육, 도로, 교통기관, 경찰 등도 있다. 또한, 법 제도가 사회를 안정시키고 군사적 안전보장이 기업 활동의 기반을 구축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덕분에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기업에서 일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업무가 가능하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주는 고객, 즉 기업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판매가 이루어진다. 판매는 기업이 경제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인 자본을 마련해 준다.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은혜들 중에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얻어낸 것도 많다. 고객의 신임과 인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그러한 노력과는 무관하게 사회가 기업의 존재를 도와주는 것들도 많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인프라 이외에도 기업이 정신을 고무하는 사회적 분위기, 불법 파업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판하는 시민의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의 은혜가 없다면 기업은 애당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한 다양한 원재료에 기술적 변환을 가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다시 시장에서 판매한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기업의 이익으로 거둬들인다. 이는 사회로부터 받는 보시(布施)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부 기업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려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는 그 기업의 기술적 변환 능력이나 효율성에 상관없이 이익(보시) 중단을 선언하고 시장에서 퇴장을 명령한다.

[라] 근대적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다양한 부분들로 분할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의 규범들과 행동양식을 가지게 된다. 노동은 여가와 구분되고, 사적인 삶은 공적인 삶과 분리되며,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나누어진다. 유년기와 노년기는 인간 삶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변형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원자론적으로 생각하여 복잡한 행위와 상호작용을 단순한 구성요소로 분석하려는 태도는 하나의 행위가 항상 하나의 이야기 속의 일화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개별적인 행위들이 전체의 부분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면, 나의 삶이 개인적 행위들과 일화들의 연속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의 이야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진행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역사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의 주체이다.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삶을 구성하는 행위들과 경험들에 대해 해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 나에게 일어난 것, 내가 목격한 것에 관해 해명해 달라는 요청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해명할 책임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해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이 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것처럼, 나 또한 그들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공통의 이야기들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처럼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 내가 한 것에 대한 당신의 설명과 나의 설명이 갖는 차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 등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이야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들이다. 주체인 나에게 해명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행위 모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

□ 문제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살다 보면 내가 남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또한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가 타인을 돕는다면 나에게 1의 비용이 발생하고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에게 10의 편익이 발생한다. 타인의 경우에도 나와 동일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자. 아래 표는 나와 타인의 선택에 따라 각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네 가지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괄호 안에 표시된 첫 번째 숫자는 나의 순편익을, 두 번째 숫자는 타인의 순편익을 의미한다. 여기서 ‘순편익’이란 편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타인	
		돕는다	돕지 않는다
나	돕는다	(9, 9)	(-1, 10)
	돕지 않는다	(10, -1)	(0, 0)

나와 타인 모두 각자 자신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에 있는 A 씨의 평가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어느 택시 기사가 차량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으나 당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고자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택시 기사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택시 승객의 행위에 분노를 표시했다.